

# 18세기말 오키도(隱岐島)의 죽도전승

- 『長生竹島記』의 「松島」를 중심으로 -

권 정\*

Yada-Takamasa, who written this book(Cyosei-Takesimaki), makes sure in the introduction, he is a Shinto priest. The temple name of a Shinto shrine is Unyou. The Unyou Temple is famous for the relation of Kojiki(a book of japanese myth). This temple was maden when a god named Okuninusi, handed over the country to the god named of Amaterasu. So Yada had a pride as a Shinto priest of Unyou Temple. So there were many episodes related with the 'Kojiki' and 'Nihonsyoki' in the introduction of this book. The theory of Kojiki is that Japan is the center of the world. Therefore Yada also written this book based on the same theory.

He written that Matsu-sima located in the west sea of Oki and the Matsu-sima is an island of Japan. This sentence is a distortion which was made on the need for ethnocentrism. It also conformed in the name of the sea. Yada called the sea which named East sea in the times, the West sea. This name influenced by the ethnocentrism. When we think the truth which Yada was a Shinto shrine of Unyou Temple, we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fiction included in this book.

Key Words : The West Sea, Oki report, Juddo forklore, TakeMatu Island, Unyou Temple  
(서해, 오키전문, 독도전승, 송죽도, 운요우다이샤)

## 1. 서 론

일본은 현재 무주지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1905년에 공식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

\* 배재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있으며, 1954년 2월 10일에는 『장생죽도기』(1801년)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자료로 거명하고 있다.<sup>1)</sup> 『장생죽도기』가 독도에 대한 자료로 거명된 것은, 본문에 「송도<sup>2)</sup>는 본조의 서해 끝에 있는 섬이다.(この松島は本朝の西海の果てに在る島である)」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자료로 상용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이 이 자료가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록이 작성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그러한 기록이 이루어졌는지 밝힘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사상과 독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또한 소중한 자료라 볼 수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록한 자료의 분석은 꼭 필요하다. 그 자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는지, 그 기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곧 독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길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자세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생죽도기』의 전문을 분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서는 10개의 단과 하나의 부속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인 「오키노시마에서 죽도로 도해하는 것을 들은 일(從隱岐洲竹島江渡海伝聞之事)」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연구』39집<sup>3)</sup>에 게재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3번째 단인 「오키에서 마쓰시마로 가는 타케시마마루(竹島丸)의 기항지(從同洲松島江竹島丸津懸り之事)」에 대해 검토하여, 본 기록이 의도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1) 황상기(1965) 「독도문제연구」 『독도』 대한공론사, p.226.

2) 본서가 편찬된 1801년 당시 竹島는 울릉도를 松島는 독도를 의미한다.

3) 권정(2013) 「18세기말 오키도의 죽도전승」 『일본학연구』39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153

## 2. 『장생죽도기』의 목록

본서의 목록은 10개의 단과 하나의 부속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오키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로 도해하는 방법과 어민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오키노시마에서 죽도로 도해하는 것을 들은 일(從隱岐洲竹島江渡海傳聞之事)

이 항목에서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치부를 들어내는 일이라고 기록한다. 편자가 무엇을 치부라고 생각했는지 본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편자는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의 가공에 속한 쓰바키 요시자에몬(椿義左衛門)이 18세 무렵인 겐분(1736~41) 연간에, 오키의 후쿠우라에서 출선한 죽도 도해선에 승선한 경험부터 기록하기 시작한다. 어린 나이에 도해하기 시작한 쓰바키가 오키에 관한 과거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 편자 야다 다카마사(矢田高当)는 110여 년 전의 경험담을 1801년에 기록하여 『장생죽도기』라고 명명한 것이다.

(2) 이즈모노쿠니에서 오키로 가는 해상도법과 항구(同洲へ從出雲国海上道法渡海津口之事)

오키의 도명의 유래와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즈모노쿠니 각 지에서의 거리를 밝혀, 오키가 죽도도해의 중개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키도의 별칭으로 오키미쓰고노시마(隱岐三ツ子の洲)를 언급하고 있어, 『고사기』의 세계관에 본서를 맞추려는 편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장생죽도기』의 편찬의도가 『고사기』의 일본중심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일본 위주 세계관의 실현이었다면, 본서가 전하는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닌 의도된 오류로 보아야 한다.

(3) 오키노시마에서 마쓰시마로 다케시마마루가 거쳐가는 포구의 일(從同洲松島江竹島丸津懸り之事)

송도를 주제로 한 노래로, 송도를 녹색의 섬으로 묘사하고 있어 섬에 대한 묘사가 사실이 아닌 관념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오키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를 36정을 1리로 해서 170리 정도라고 소개한 점과 섬에 용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타 기록과 유사하

나, 그 넓이가 중횡 5리 3리라고 소개한 점과 18송(十八公), 즉 소나무로 장식된 섬으로 묘사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송도를 죽도에 왕래하며 들리는 섬으로 소개하며, 일본 서쪽의 극지(本朝西海のはて也)라고 소개하고 있다.

(4) 오키에서 죽도로 도해하는 해상 거리(從同洲竹島渡海并海上道法之事)

역시 편자의 노래로 시작되는데, 죽도를 대나무와 연관시켜 송죽의 상서로움을 연상시키고 있다. 송도와 죽도 간의 거리와 면적을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와 차이가 있다.

(5) 오키에서 대명신의 신덕으로 죽도에 도해하는 일(同洲渡ル。大明神御神徳を以竹島渡海之事)

도해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명신의 영험으로 송도와 죽도의 상서로움 또한 보장 받고자 한다. 그러한 기복사상은 무나카타여신(宗像女神)을 매개로 하여 『고사기』의 세계로 이어진다.

(6) 오키에서 죽도로 여섯 번째로 도해할 때 조선인을 만나 서로 놀란 일(從同洲竹島へ渡海六度目朝鮮人出合互驚たる事)

1692년 이전에는 조선인의 죽도(울릉도)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어민들은 공동 어로를 합의하고도 조선인의 폭력이 두렵다며 도명대신(渡明大神)의 수호를 빌며 귀범했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충기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이다.

(7) 오키에서 죽도로 일곱 번째의 도해, 주연에 능한 조선인(從同洲竹島江渡海七度目唐人酒宴長したる事)

죽도도해를 천한 어민들이 수행하는 일로 단정하면서도 이익을 거두어야 하는 어민의 도리를 강조한다. 어민들은 마지못해 도해하여, 조선어민을 선상으로 유인해 만취시켜 납치한다. 순풍을 도명대신의 수호로 설명하여, 죽도도해와 납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8) 오키로 조선인을 납치하고 주진한 일(從同洲唐人連來り御注進之事)

안벤테후(안용복)와 토라헤히(박어둔)의 납치를 우매한 자의 악행으로 보고 있다. 조선인을 오키에 억류하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요나고(米子)·돛토리(鳥取)를 거쳐 나가사

키(長崎)로 송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9) 죽도에서 당인을 납치해 선상에서 심문한 일(從同島唐人連來  
る刻船中乗り艫尋問之事)

선상에서 양국 어민들이 별자리와 자석을 이용한 항해술에 관해  
문답하며, 동아시아 항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일본 항해술의 우수  
성을 언급하고 있다.

(10) 오키에서 8년째 안벤테후와 토라헤히가 의리를 따지며 인  
슈에 재도해한 일(從同島八年目あべんてふ虎へひ義を糺して隱洲江  
再ヒ渡海之事)

조선인의 재방문을 군자의 덕행으로 보았다. 쓰바키의 8회째 도  
해란 1696년의 도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1693년의 도해로 납치 억류당하였고, 1696년의 도해 시에는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않았다.

### 3. 松島에 관한 기술

본서의 3번째 장인 「오키노시마에서 마쓰시마로 다케시마마루가  
거쳐가는 포구의 일(從同洲松島江竹島丸津懸り之事)」은 편자인 야  
다 다카마사(矢田高当)가 송도를 소재로 봉요(한시의 평측) 형식으  
로 노래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隱岐洲より松島へ竹島丸の津懸りの事」

松島にこと寄せ、この矢田高当が、拙い蜂腰(歌の平仄)の中  
で詠んだ歌である。

空の色も一つ緑の松島かな 雲も嵐も払う木末は

さて、それでは隱岐の島後から松島へ行くに、その方角はと  
言えば、申酉(西方)の沖に当る。卯方(東方)から吹き出す風を受  
け、二日二夜を帆走する。その道のりは三十六丁を一里として、  
海上の行程は百七十里程のものだという。その島山の形状は嶮岨  
で、その土地の里数は [たてよこ] 五里三里ほどだという。[そ  
の島山の情景は]古語にある如く十八公の粧いで、万里にまでも  
島影を現わし、その遠景は美しく比類のないものであるという。

しかし、どのようなわけか、炎天の頃〔この島では〕用水が不自由になるという。竹島へ渡海する折〔その海の道を〕竹島丸が往き通いする折、必ずこの松島へ津懸り(停泊)したという。当時も千石余の廻船が、夷島の松前に行く折、図らずも大風に吹き出され〔島の近辺にまでも押し出されることがあった。〕その時、これこそ伝え聞いた松島であるかと〔船乗りたちは〕遠見した。  
〔この松島は〕本朝の西海の果てに在る島である。

「オキノシマ에서 마쓰시마로 타케시마마루가 거쳐가는 포구의 일,

송도를 생각하며, 야다 다카마사가 서툰 봉요(한시의 평측) 중에 읊은 노래이다.

하늘색도 같은 녹색의 마쓰시마. 구름도 바람도 떨쳐버리는 나뭇가지의 끝

그렇다면 오키의 도우고에서 마쓰시마에 가려면, 그 방향을 말하자면 신유의 먼 바다에 해당된다. 묘방에서 불기 시작하는 바람을 받아 2일 2야를 범주한다. 그 도정은 36정을 1리로 해서, 해상의 행정은 170리 정도라고 한다. 그 섬의 형태는 험난하여, 그 토지의 이수는 5리 3리 정도라 한다.〔그 도산의 정경은〕 고어에 있는 것처럼 18공의 치장으로 만 리까지도 섬 그림자를 나타내어, 그 원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염천 무렵에 용수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죽도에 도해할 때 다케시마마루가 오갈 때, 반드시 이 송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당시도 천 석 여의 회선이 夷島の 松前に 갈 때, 생각지도 못한 대풍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전해들은 송도인가라고 멀리서 바라보았다. 본조의 서해 끝에 있는 섬이다.

위 내용은 오키노시마(隱岐国)에서 다케시마마루에 승선하여 송도에 도해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송도에 관한 묘사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혼재되어 있다.

편자가 송도의 정경을 노래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본 장은 송도로의 항로와 거리 그리고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리만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 정경과 넓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위의 내용 중 오키의 서쪽에 송도가 존재한다는 것, 동풍을 받아 항해한다는 것, 용수가 불편하다는 것, 죽도에 도해하는 도중

에 들린다는 것, 항해하는 선박에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등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다. 그 반면, 2일 2야 항해해 갈 수 있다는 170리라는 항로나 5리 3리라는 섬의 면적, 섬에 소나무가 자란다는 기술 등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송도를 일본 서해의 마지막 섬이라고 단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죽도와 송도를 하나의 쌍으로 보는 데서 기인된 관념적인 기술이다.

편자 야다(矢田)가 송도가 있는 바다를 서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에 유포되었던 민족주의에 근거한 관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기록에서는 일본어민들이 승선해 죽도로 항해하던 선박명을 다케시마마루(竹島丸)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타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송도가 일본 서방의 극지(本朝西海のはて也)라는 기술내용과 함께,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한 기술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을 죽도영유의 근거로 보기도 하지만(太寿, 1965: 115), 한편으로는 이 기록은 민간인의 전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정식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구전기록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구명할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허구적 사실 역시 당시 어떠한 필요로 인해 주장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송도가 일본 영토의 극지라는 기록은 현재의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는 더 없이 유리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본서 『장생죽도기』를 송도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해주는 자료로 거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한 부분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는 허구와 사실적 요인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그것을 구별해 본 기록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관념적인 허구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송도가 일본 서방의 마지막 영토라는 기록의 본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1 다케시마마루(竹島丸)

본 기록은 오키(隱岐)에서 송도(현 독도)로 도해하는 배가 다케시마마루(竹島丸)였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로 도해하는 선박이 다케시마마루로 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송도(독도)의 영유권 다툼이 시작된 것은 20세기의 일이지만, 17세기에는 이미 죽도(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은 논쟁을 벌였었다. 일본은 죽도도해금지가 결정되기 전후, 죽도(울릉도)로 끊임없이 도해하고 있었으며, 다케시마마루는 그 선박 중 한 척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의 울릉도도해는 『삼국사기』등의 기술로 보아, 신라시대 이전부터 동해안 어민들이 상시적으로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三代実録』에는 신라인들이 일본의 산음(山陰)지역에 표착했다는 기록이 있다.<sup>4)</sup> 이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미 울릉도와 독도에 도해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선시대에는 해금정책이나 쇄국정책으로 공식적인 도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생활을 위한 도해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해를 금지시킨 양국 정부도 생계를 위한 도해까지는 근절시킬 수 없었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에 도해하는 배들은 많았음에도 그 선명이 알려진 것은 없었다. 특히 17세기에 막부의 허가를 받았으며 울릉도로 도해해, 양국에 영토분쟁까지 야기했던 어민들은 물론, 그 분쟁에 관여한 돛토리번이나 대마번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기록을 남겼음에도, 그 선박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본장이 기록하고 있는 다케시마마루라는 선박명은 관견으로는 첫 기록으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케시마마루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죽도에 도해하던 오야가(大谷家)와 무라카와가(村川家)의 선박으로 판단된다. 양가의 죽도도해는 1625년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다케시마마루 역시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가(大谷家)와 무라카와가(村川家)가 1625년부

4) 因幡国云ふ、新羅国人五十七人荒坂浜頭に来着す。ほぼ商人に似ると。是日勅して程糧を給し、本蕃に放却せしむ(『三代実録』貞觀五(863)一月十七日 丙午)。

터 죽도에 도해시켰던 선박으로 추정된다.

죽도에 도해하는 선박에 관한 기록은 『控帳』과 『竹島渡海由来記 拔書控』에 보인다. 이에 의하면 1666년 오야가가 보낸 배가 죽도에서 귀환하던 중 폭풍을 만나 부산포에 표착했다. 배는 파손되었으나 선원은 모두 구출되어, 대마도의 출장소를 거쳐 무사 귀환했다.<sup>5)</sup> 이 사건에 관한 기록에는 선명이나 선단 규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竹島考』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간분 6(1666)년은 죽도도해가 大谷九右衛門의 年番에 해당했기 때문에 13단 돛을 단 배 두 척을 정리하여 테다이 지로 우베에라는 자를 책임자로 해서 이 저 사람 50인을 태워(중략) 죽도에 착안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렵음 하고, 목수들은 정박하여 있는 동안에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판자로 썰어서 새로 15단 돛의 배를 만들었다. 동년 7월 3일에 쌓아 두었던 물건들을 3척의 배에 싣고 우와노리 지로우베에 및 米子の 선원 12명에 隱岐國의 수부 9명, 도합 21인은 새로 만든 배를 타고 3척의 배들은 동시에 죽도를 떠났으나, 다음날 4일 정오에 갑자기 폭풍이 일고 파도가 거칠어져 2척의 배는 어느 새 휩쓸려 자취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sup>6)</sup>

오야큐우에몬이 출항하는 해(大谷九右衛門が年番ニテ)라는 기록으로, 죽도도해는 오야가와 무라카와가가 교대로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야가는 13단 돛을 단 배 2척에 50여인을 태우고 죽도로 도해했다. 그 후 죽도에서 1척을 새로 만들어 3척으로 귀환하

5) 右勝実代 寛文六年 竹島渡海之船 朝鮮国釜山沖ニ而及破船 尤船頭水主共無恙陸江泳上 則朝鮮国所々ニ而御馳走 順々ニ送歸シ相成事, 권오엽·大西俊輝편 역주(2011) 『竹島渡海由来記拔書控』 한국학술정보, p.216, 權五擘(2010) 『控帳』 책사랑, p.13.

6) 寛文六年ハ竹島渡海大谷九右衛門が年番ニテ拾三反帆ノ船ニ艘ヲ整ヒ手代次郎兵衛ト云者ヲ上乘トシテ彼此五拾人乗組ミ(중략) 竹島へ着岸シ例歳ノ如ク海獵ヲ営ミ工匠等ハ停船ノ間山ニ入テ木ヲ剪リ板ニ挽テ新ニ拾五反帆ノ船ヲ造リ同年七月三日積貯置タル物共ヲ三艘ノ船ニ載テ上乘次郎兵衛並び米子の船子十二人に隱岐國の水夫九人、都合二十一人は件の新造船に乗り組んで三艘の船ともは同時に竹島を開洋したが、翌日四日の午ノ時塙然トシテ悪風起リ狂涛奔突して二艘の船は見るか内に吹き放たれて形も見えなくなった。(『竹島考』下卷, 大谷之船漂到ス朝鮮国)

던 중, 2척은 행방불명되고 1척 만 조선 부산포에 표착하게 된다. 귀선의 선박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 선박이 오야가 소속의 선박인가, 아니면, 무라카와가와 공유하고 있던 선박인가 하는 점이다. 1692년에 파견한 선박의 선두(船頭)가 「무라카와 이치베에 주두 히라베에(村川市兵衛舟頭平兵衛), 동 쿠로베에(平兵衛)」였고, 다음해 1693년에 오야가가 파견한 선박의 선두 역시 쿠로베에(黒兵衛)와 히라베에(平兵衛)였다. 두 해 모두 동일인물이 선두였던 것으로 보아, 양가의 도해는 연번을 정해 교대로 행해지고 있었고, 배의 운행은 같은 선두에게 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가는 배를 공유하고, 이에 승선하는 선두와 선원도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2 송도에 관한 인식

편자 야다다카마사(矢田高当)는 노래로 송도의 전체적인 인식을 묘사한 후, 그 후 그곳으로 가는 항로와 면적 등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 그의 송도에 대한 노래와 서술을 확인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때문에 실제로 송도를 보고 노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늘색도 같은 녹색의 송도로구나, 구름도 바람도 펼쳐버리는 나뭇가지의 끝  
空の色もひとつみとりの松島哉 雲もあらし乃はらふ木すゑは

이것은 송도를 색으로 표현한 노래로, 하늘색의 한 섬, 즉 녹색의 섬으로 송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늘색도 같은 녹색(空の色もひとつみとり)」이라는 표현의, 「하늘색도」는 송도가 아니라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펼쳐진 「바다도 녹색」을 지칭한다. 그렇게 녹색바다와 녹색하늘인 공간에 녹색인 송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편자의 의견이다. 송도가 녹색이라는 것은 같은 노래에 보이는 소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나무들이 우거져 섬 전체가 녹색으로 보이고, 그 소나무 가지 끝에 바람이 불어 바람저편으로 구름이 보인다는 표현이다. 이 노래에는 소나무라는 단어는 없으나, 본문 「십팔공의 치장으로, 만 리까지도 섬 그림자를 나타내

어, 그 원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한다(十八公の粧ひ万里に影を移し風景他)」에 보이는 「十八公」, 즉 소나무(松)로 치장된 섬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 나무가 소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도는 나무가 자라는 섬이 아니다. 송도(松島)를 죽도(竹島)로 개명한 명치정부는 시찰단의 일원으로 오쿠하라(奥原碧雲)를 죽도로 파견했고, 1906년 그의 보고에 의해 죽도는 돌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도가 암골을 노출하고, 상부를 약간의 흙이 덮여 잡초가 자라는 것 이외에 하나의 수목도 보이지 않는다.<sup>7)</sup>

토양은 겨우 상부를 덮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전도에 한 그루의 수목이 없고 잡초가 곳곳에 자랄 뿐이다. 시찰할 때 동도의 정상에 올라 실견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감제풀 핑의 비름 해변 패랭이꽃 해변 썸바귀. 해초에는 김 모자반 구라시루비아 우뭇가사리 고쓰노마타 등이 있다. 서도는 등반할 수 없었지만 동도와 대동소이할 것이다.<sup>8)</sup>

이처럼 소나무와 같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오쿠하라는 아침의 태양 아래에 모습을 드러낸 죽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갑판에 올라갔더니 태양은 이미 동천에 올라 죽도의 거암은 가깝게 눈 앞에 가로 놓였다(중략) 돌월한 양 암이 우뚝하게 해면을 솟아 수백 척이다. 단애절벽이 우뚝 솟아, 한 조각 암각을 침식하여, 곳곳에 동굴 문을 뚫고, 수십의 암초가 그 부근에 나열한다(중략). 정상에 서서 두 눈을 뜨니, 바다와 하늘이 방불하여 그 구분을 할 수 없다.<sup>9)</sup>

7) 全島一の碇泊所を有せざる(奥原碧雲著, 권오엽 역주(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 p.32.

8) 本島は、岩骨露出して土壤は僅に上平部を彼ふに過ぎざれば、全島一の樹木なく、雑草の処々に生長せるのみ。視察の際、東嶼の頂上に登りて、実見せしもの左の如し。イタドリ ベソケイサウ ハマナデシコ ハマニガナ 海藻には 海苔 ホンダハラ グラシルーピア テソグサ コツノマタ 等なりき、西嶼は登攀するを得ざりしも、東嶼と大同小異なるべし(전계주, p.12, p.37)

9) 甲板に上れば、太陽は既に東天に昇るて、竹島の巨巖は、近く眼前に横はれり。(中略) 突兀たる兩巖峨々として海面を抜くこと数百尺。斷崖絶壁峭立して、寒潮

송도의 전체적인 인상을 하늘과 바다가 구별되지 않는 공간에 위치한 바위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같다는 내용은 야다의 노래와 같으나, 야다가 묘사한 녹색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표현이다. 야다가 송도를 소나무의 녹색으로 치장된 섬으로 표현한 것은 실제에 근거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상상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만리까지도 섬 그림자를 나타내어, 그 원경은 아름답기 그 지없다고 한다.」는 전문을 인용해 송도의 정경을 칭송한 내용은, 암적인 송도의 그림자가 녹색으로 보이는 바다에 길게 드리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섬 그림자의 묘사일 뿐, 송도의 실경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야다가 설명하는 송도의 모습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3.3 송도까지의 거리와 면적

다음으로 송도까지의 거리를 보기로 하자. 오키(隱岐)에서 송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동방에서 부는 바람을 받으며 서방으로 2일 2야를 범주해야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36정을 1리로 하는 170리라는 설명이다. 170리는 약 67Km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이를 2일 2야에 걸쳐 범주한다는 것이 야다의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2일 2야가 몇 시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48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원록 5년의 기록을 보면, 3월 24일에 오키의 후쿠우라(福浦)에서 출선하여 26일 아침 8시에 죽도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 후쿠우라를 출선한 시간의 기록이 없어, 죽도까지 걸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약 48시간에 걸친 범주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록 6년에는 4월 16일에 후쿠우라를 출선하여 17일 14시에 죽도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에는 2일 1야로 도착하여, 48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이 된다. 당연히 죽도보다 가까운 송도까지는 더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巖脚を侵蝕し、廻々に洞門を開き、幾十の岩礁その附近に羅列す。(中略) 頂上に立ちて双眸を放てば、水天彷彿際涯を知らず(전계주, p.239)

1696년에 울릉도와 자산도를 거쳐 오키에 표착한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새벽에 출선해 당일 자산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왜인들에게 추격당해 오키도에 표착하였기 때문에, 자산도에서 오키까지 걸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

또한 안용복의 진술을 기록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는 5월 15일에 죽도를 출발하여 동일에 송도에 도착, 16일에 송도를 출발하여 18일 아침에 오키도 시니무라(西村) 해안에 도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0)</sup> 역방향이고 광풍을 만나 표류했기 때문인지 3일 2야에 걸친 항해였다.

다른 기록으로는 막부의 질문에 돛토리번이 요나고(米子) 어민에게 확인한 후 보고한 내용이 『죽도지서부』에 있다. 그곳에는 「이나바(伯耆国) 요나고(米子)에서 이즈모(出雲) 구모즈(雲津)까지는 10리 정도, 구모즈(雲津)에서 오키국(隱岐国) 다쿠히야마(燒火山)까지는 23리, 다쿠히야마(燒火山)에서 후쿠우라(福浦)까지는 7리, 그리고 후쿠우라(福浦)에서 송도까지는 80리 정도라는 기록이 있다.<sup>11)</sup> 본 장에서 이야기하는 170리와는 큰 차이가 나는 해로이다. 80리라면 31Km이고 170리라면 66Km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키도에서 송도까지의 실제거리는 160Km이다. 모든 기록이 실제 거리와는 차이가 있다. 송도의 정경 뿐 아니라, 거리까지도 현실과는 다른 것이다.

다음은 송도의 면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서 4장에서는 송도의 면적을 종횡 5리 3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음 장인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죽도의 면적 종횡 5리 10리와 비교해 볼 때, 송도는 죽도의 약 3분의 1의 크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지의 의하면 독도의 동도는 73,297제곱미터이고, 서도는 88,639제곱미터로, 동서도를 합하면 187,554제곱미터이다. 울릉도의 면적이 186,121제곱키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죽

10) 五月十五日に竹嶋を出発し、同日には松嶋に着いた。翌十六日、松嶋を出発し十八日の朝、隱岐島の西村の海岸に着いた(권오엽, 大西俊輝 『元祿覚書』(2009) 제이앤씨, p.178)

11) 一、伯耆国米子より出雲雲津迄、道程拾里程 一、出雲国雲津より隱岐国焼火山迄、道程式拾三里程 一、隱岐国焼火山より同国福浦迄七里 一、福浦より松嶋江八十里程(『竹嶋之書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도(울릉도)는 송도(독도)의 약 40만 배의 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편자 야다다카마사의 송도 인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생죽도기』가 편찬된 19세기 초, 일본의 송도(독도)에 관한 관심은 저조했고 송도에 관한 인식 역시 불확실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송도(다케시마)의 고유영토설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 이는 후의 도명(島名)의 변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안쿠루호는 이 해역을 항해하던 중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리안쿠루암이라고 명명했다.<sup>12)</sup> 일본의 막부는 당시 송도라고 부르던 독도를 서양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리안쿠루암이라고 불렀고, 송도라는 명칭은 당시의 울릉도를 호칭하는 명칭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 후 1905년에는 리안쿠루암 대신 항간에 남아있던 다케시마라는 도명을 재사용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며 은밀히 일본령에 편입시켰다. 때문에 현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이 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여 도명이 여러 번 뒤바뀐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혼돈으로 보아도 다케시마의 고유영토설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 3.4 다케시마 시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서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한다」며, 전란을 틈타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1906년에는 각 계 각 층의 45인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조직해, 다케시마(기존의 송도, 즉 독도)와 울릉도를 시찰하였다. 새로 편입된 영토인 다케시마를 시찰하여, 국가의례로서 영도를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그 일행들이 다케시마(독도)를 보고 부른 노래가 『죽도 및 울릉도』에 게재되어 있다. 풍류학사와 오쿠하라헤키운(奥原碧雲)이 「죽도에서(竹島にて)」라는 제명으로 부른 4수의 노래가 그것이다.

12) 大西俊輝저·권오엽 권정 역(2004) 『독도』 제이앤씨, p.46.

죽도에서 풍류학사

죽도는 이름뿐이었다. 와서 보니 신화시대부터 바위뿐이다.

竹島にて 風流学士

竹島は名のみなりけり来て見れば神代なが岩のみにして。

同

파도색도 바위색도 보이지 않게 강치가 떼지어 있는 새로운 대의 섬.  
波の色も巖の色も見えぬまで海驢むれ居る新竹の島。

碧雲

북해 조수의 물말이 높은데, 만고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뿌리 죽도로드.  
北の海や大高汐の高なりに 万古動ぜぬ岩根たけしま。

同

흰 파도가 밀려 깨지는 바위에서 단잠을 자는 강치 한 무리.  
白浪の寄せて碎くる岩かどに眠りむさぼる海驢のひとむれ。

이상의 4수의 노래에는 『장생죽도기』의 편자 야다 다카마사가 칭송한 다케시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바위와 그곳에 서식하는 강치를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풍류학사의 노래 중 「새로운 대의섬(新竹の島)」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편입된 영토, 즉 새로 확장된 영토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다. 따라서 이곳의 대의섬(新竹の島)은 대나무가 우거진 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까지 마쓰시마(송도)나 리안쿠루암으로 호칭되던 섬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게 된 사실을 확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다케시마를 시찰한 일행은 다케시마(죽도)를 실견하고 이에 근거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먼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에 관해, 「본도는 나무가 없고 사람이 없는 바위섬으로, 육지 동물은 아주 적지만 해산동물은 비교적 많은 것 같다」와 같이 묘사하고, 섬 전경에 관해서는 「강치와 갈매기를 들뿐이었다. 그리고 본도는 암굴이 노출하여 토양은 겨우 상부를 덮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전도에 한 그루의 수목이 없고, 잡초가 곳곳에 자랄 뿐이다.」<sup>13)</sup>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케시마(죽도)를 수목이 없고 약간의 잡초만이 자라고 있는 섬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생죽도기』의 묘사와는

13) 奥原碧雲 著·권오엽 역(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 p.38.

달리, 현지 시찰을 통한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4. 서해와 동해, 일본해

본서의 편자인 야다는 본 4장에서 「본조의 서해 끝에 있는 섬이다(本朝西海のはて也)」와 같이, 송도(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이것은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를 한 쌍으로 보고, 한 쌍을 이룰 때 상서롭다고 표현한 편자의 인식과도 모순되고, 송도에 관한 묘사자체가 현실이 아닌 편자의 상상에 근거한 것임을 통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편자 야다는 송도와 죽도가 서해에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 열도를 둘러싼 바다의 방위에 입각해 볼 때, 일본 열도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표현이다.

우리가 야다가 말하는 서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되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열도의 서방에 있어서 서해, 우리나라의 동방에 위치해 동해로 부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호칭이다. 하지만 일본이 송도와 죽도가 있는 바다를 서해로 부른 일은 흔하지 않다. 현재 일본은 이 바다를 서해가 아닌 일본해로 호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바다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 야다는 이를 서해라고 호칭하고 있어, 그 호칭의 본질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일본」이라는 국명이 고대 시초부터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고대문헌 『위지』 왜인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왜」로 불리고 있었다.<sup>14)</sup> 「광개토왕비문」에서도 일본은 천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왜」·「왜인」·「왜구」·「왜적」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15)</sup>

일본이 스스로를 일본이라 칭하게 되는 계기는 다음 기록과 같다.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문서를 해가지는 천자에게 보낸다.  
별 일 없이 지내는가 운운. 양제가 이것을 보고 불쾌하여, 흥

14) 神野志隆光(2005) 『日本とは何か』講談社、p.10.

15) 권오엽(2011) 『광개토왕비의 신화』인문사、p.457.

러경에게 만이의 서찰임에도 무례하기 그지없다. 두 번 다시  
주문하지 말거라

日出処天子. 致書日没処天子. 無恙云云. 帝覽之不悅. 謂鴻臚  
卿曰. 蠻夷書有無礼者. 勿復以聞. 『隋書』東夷伝 倭国

이 기록을 근거로 일본은 스스로를 「해가 뜨는 세력」으로, 수나라를 「해가 지는 세력」으로 표현하려 했다. 원래 「해가 뜨는 곳」이라는 용어는 우열의 관념이 아니라,<sup>16)</sup> 이는 불경에 근거한 표현으로,<sup>17)</sup>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구별하는 표현일 뿐이다. 때문에 위치의 우열을 의식하고 인용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기재된 『大智度論』은 일본에 일찍이 전래되어 성덕태자(聖德太子)도 인용할 정도의 경전이였다. 이 「日出処」와 유관한 것이 「日本」이라는 국호이다.

중국의 정사를 보면 『구당서』는 「왜국일본」이라고 왜국과 일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신당서』는 「일본」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일본이라는 국호는 당나라 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당서』는 「일본은 왜국의 별종이다 그 나라가 해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본을 국명으로 한 것이다. 왜국은 스스로 그 이름이 우아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서 일본으로 개칭했다 한다.」<sup>18)</sup>고 기록하고 있다.

견당사가 파견된 대보 2년(702)을 기해 행해진 개명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일본으로의 개명을 허가했다.

고대 중국의 세계상에서는 동방의 끝, 즉 해가 출몰하는 곳에 「일역(日域)·「일하(日下)」 등과 더불어 「일본(日本)」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중국은 일본이 동방에 있는 바다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정사는 일본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조선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조선(樂浪, 韓, 帶方, 高麗, 百濟, 新羅 등)의 동남대해(東

16) 増村宏(1988) 『遣唐使의 研究』 同朋舎、p.45.

17) 如經中說, 日出處是東方, 日没處是西方, 日行處是南方, 日不行處是北方 『大智度論』卷10, 東野治之(1992) 『遣唐使와 正倉院』 岩波書店、p.99.

18) 日本国者倭国之別種也. 以其国在日邊. 故以日本為名. 或曰. 倭国自惡其名不雅改為日本 『旧唐書』日本国

南大海) 중에 일본이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 중국정사의 인식이었다.

예를 들어 육조(六朝)에서 당 초기의 중국은 왜를 동해 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후 오대 송초의 『의초육첩(義楚六帖)』에서도 「일본국의 다른 이름은 왜국으로 동해 중에 있다(日本国亦名倭国東海中)」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 그 후, 『원사(元史)』 역시 「일본국은 동해의 동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동해 속에 존재하는 섬나라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갔다.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인식에 의하면 일본은 물론 송도 역시 동해에 존재하는 섬이 된다. 그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바라본 해역(海域)의 사방인식이다. 그러한 인식을 뒤집어 『장생죽도기』의 편자인 야다는 이 해역을 서해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역의 방향 변경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일본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해역을 동해·서해·남해·북해의 사해(四海)로 구분한 세계관에 근거한 해역의 명칭이었다.

## 5. 결 론

본 장은 오키도에서 송도로 가는 항로에 관한 설명과 송도에 관한 편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 내용은 사실이 아닌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사실과 관념적 허구를 혼재시켜 독자에게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송도에 식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나 송도가 오키도의 서방에 존재한다는 사실, 동풍을 타고 도해한다는 사실 등을, 송도(독도)가 「본조의 서해 끝에 있는 섬이다(本朝西海のほて也)」와 같은 내용과 혼재시켜 모두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기록은 전문에 의한 것이고 공식적 기록이 아니므로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허구가 혼재된 기록일지라도, 어떠한 편찬의도로 인해 그러한 왜곡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일본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본서의 3번째 장의 송도가 일본 서해의 끝에 존재하는 섬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한다. 본서가 「다케시마 고유영토설」의 근거로 사용되는 연유이다.

본서 기록의 부분만을 인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논리를 유출해 내는 방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본서의 편자인 야다(矢田高当)는 서문에서 「운요우다이샤 아카히토사토 야다 다카마사(雲陽大社赤人墳矢田高当)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다. 운요우다이샤는 오토쿠니누시노카미가 천신에게 나라를 양도할 때, 그 대가로 조성되었다는 유래신화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신사로, 야다는 것처럼 전통 깊은 신사의 칸누시(神主)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야다가 작성한 서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고사기나 일본서기가 전하는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배경이 되는 오키(隱岐)는 당시 오키노시마(隱岐島), 인슈우(隱州) 등으로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를 굳이 고사기의 세계관을 연상시키는 「오키노미쓰코노시마(隱伎之三子島)」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야다는 고사기의 세계관이 그렇듯이 당연히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본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로 인해 극히 상식적인 사실, 즉 오키의 서편에 송도가 존재한다거나 동풍을 받으며 범주한다거나 송도는 식수가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나열한 후, 송도가 일본 서해의 끝에 존재한다는 표현을 첨부하여 마치 송도가 일본에 속하는 섬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에 유행하던 민족주의 사상에 편승한 의도된 사실의 왜곡이다. 그것은 편자가 당시 동해나 조선해로 불리던 바다를 서해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던 시대에 야다는 일본을 동해의 중심에 존재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송도가 위치하고 있는 바다 역시 조선해나 동해가 아닌 서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중화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에 근거한 명명(命名)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관이란 상술했듯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 즉 일본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소중화세

계관」이다. 편자인 야다가 『고사기』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인 出雲大社の 칸누시(神主)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서의 기록에 보이는 허위 사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오엽(2010) 『控帳』 책사랑, p.13.  
\_\_\_\_\_(2011) 『광개토왕비의 신화』 인문사, p.457.  
권오엽·권정(2007) 『고사기』상, 고즈원, p.126.  
권오엽·오니시도시테루(2007) 『隱州視聽合紀』 동북아역사재단, p.57.  
권오엽·大西俊輝(2009) 『元祿覚書』 제이엔씨, p.178.  
권오엽·大西俊輝 편 역주(2011)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한국학술정보, p.216.  
권정(2013) 「18세기말 오키도 죽도전승」 『일본학연구』 39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153.  
최장근(2008)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p.138.  
황상기(1965) 「독도문제연구」 『독도』 대한공론사, p.226.  
奥原碧雲 저·권오엽 역(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 p.12, p.32, p.37, p.38, p.239.  
大西俊輝 저·권오엽 권정 역(2004) 『독도』 제이엔씨, p.46.  
神野志隆光(2005) 『日本とは何か』 講談社, p.10.  
東野治之(1992) 『遣唐使와 正倉院』 岩波書店, p.99.  
増村宏(1988) 『遣唐使의 研究』 同朋舎, p.45.

성 명(한 글) : 권 정

(한 자) : 權 靜

(영 문) : Kwon, Jung

논문영어제목 : The Report of Juddo on Oki Island in 18 Century

소속 : 배재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E-mail : [shirijung@hanmail.net](mailto:shirijung@hanmail.net)

투 고 일 : 2014 년 3월 21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